

1984년도 양계 및 관련업계를 돌아보며

〈편 집 부〉

1984년은 양계업계를 중심으로 관련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 이 변화는 금년에도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현재 전문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지난해 업계변화를 정리하고 금년도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편집자 註)

부화업계

부화업계로서는 갑자년이야말로 살을 깎아내는 한해였다.

甲子가 육감의 첫 시작인 것처럼 부화업계의 정리가 시작된 한해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본지 84년 11월호에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이웃 일본의 경우 65년도에서 70년까지 5년간 부화장의 30%가 문을 닫았고, 그후 80년까지 10년간 40%가 감소하여 15년간 부화장은 70%가 정리되었다. 이는 규모의 대형화, 마진을 감소와 더불어 계열화에 따른 꼭 필요한 병아리만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오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지난 84년은 우리가 이러한 일본의 형태를 뒤쫓기 시작한 원년이었으며, 이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과거 채란계 부화는 진통없이 잘 교통정리가 되었지만 브로일러 부화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자못 심각하다. 이미 채란계로 전환하거나 또는 자체사육장을 확보하는 등 개별적인 자구책 마련과 중견 부화인들의 대책위원회 구성 및 전국 부화인대회 구성 준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반문제가 새해로 미해결된 채 넘어옴으로써 금년도 부화업계는 진통이 계속될 것이다.

브로일러업계

부화업계 변화를 몰고오게 된 사육방식의 변화가(all in all out) 84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육계업계의 변화도 84년 11월호에 이미 게재한바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로 한다.

작년에 비교적 육계가격이 안정되었던 것은 사육방식의 변화와 함께 생산조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1월까지의 육계사료 생산량은 83년의 740,770t보다 22.6%가 적은 573,440t이었다. 인구와 소득은 증가하였는데 생산량은 감소하여 슬기롭게 가격을 유지하였다.

또 육계농가들이 비교적 소득이 안정되었던 것은 부화업계의 난조로 50~100원까지 하락한 초생추를 입식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화업계를 딛고 일어서기 시작한 한해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브로일러 초생추 가격이 117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입개방과 더불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계 병아리

일본브로일러생산비
(단위: 생체 kg·W)

구분	1983
병아리대	117.2
사료비	552.8
수도·광열비	26.1
방역 및 약품대	15.5
입차료 및 요금	1.0
건물비	10.2
농구비	16.5
노동비	55.1
비용합계	794.3
부산물수입	5.6
제1차생산비	788.7
자본이자	6.9
지대	2.6
제2차생산비	798.3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1¥=3.3원)

가격이 100~110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브로일러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업계의 피나는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

한편 지난해 12월20일 개접하려던 천호인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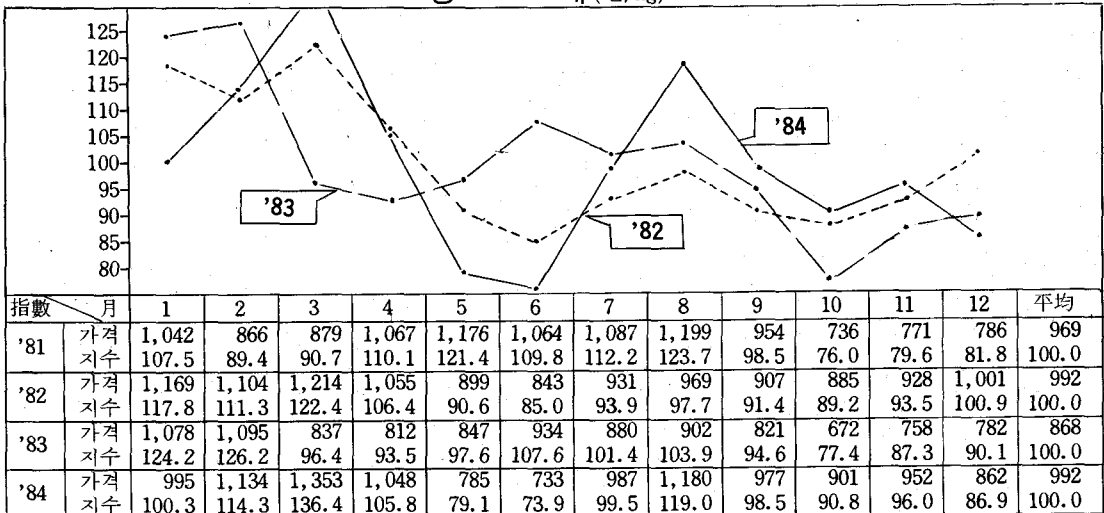
그레이션이 금년으로 연기되었고,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과 그의 1~2개 회사가 눈치를 보아가며 계열화 생산·유통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이들 업체에 자금 등 제반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육계생산비 절하 경쟁으로 업계 발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짙다.

83년 3월부터 서울시 일원이 도계유통을 실시하여 지난해는(아직도 다소의 밀도계가 있지만) 시장에서 털을 뽑아주는 것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위탁도계 경쟁으로도체율을 높이기 위한 내장 붙여두기(허파·신장 등), 방혈 완전히 안하기, 몇개씩 털 붙여주기 등이 일부 도계장에서 지켜지고 있어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어왔다. 여름철 트럭에 실린 도계품이 TV에 출연하였고 이들은 경찰서 마당에서 변질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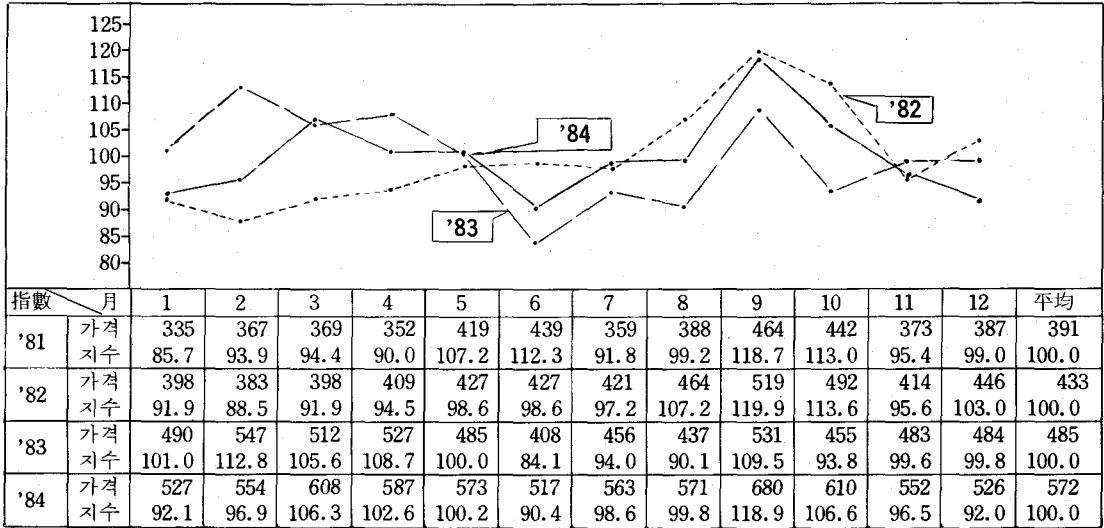
협회는 농수산부와 미국사료곡물협회의 후원을 얻어 미농무성 도계검사원(어형선 박사)을 초청하여 국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수준이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임이 밝혀진 바 있다.

어쨌든 새해에도 브로일러업계는 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 계 (원/kg)



계 란 (대란, 원/10개)



채란 업계

연초 배합사료 원료용 사료곡물의 원료다변화 정책에 따라 원료는 다변화되었는데 배합사료 품질저하로 산란율이 떨어진다는 양축농가의 불만이 크게 높아지면서 한해가 시작되었다. 양계협회와 사료협회가 지방을 순회하며 배합사료 품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론의 불을 끄는데 노력하였다.

한편 특란과 대란의 차이가 한때 12원까지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닭들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아직도 갈색계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석을 앞두고는 계란값 상승으로 경제기획원 물가당국으로부터 난분 수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지만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김으로써 안도의 한숨을 쉬 적도 있다.

서울계란가공(주)이 액란제조시설을 가동하였고, 한국냉장(주)이 G.P.C.를 설치하여 아주 극히 적은 물량이나마 위생 처리해서 시장에 선을 보였다. 그러나 위생계란이란 선전을 높이 하자마자 K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계란이 항상 물질잔류라는 기사가 실려 양계업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는 무공

해 계란이 범람하여 마치 공해계란속에서 일부 특수층이 고가로 무공해 계란을 즐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금년에는 항생물질 외에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품질향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업계

사료곡물 다변화로 시작해서 배합사료종류 다변화로 끝난 한해였다.

곡류다변화, 수입선 다변화로 시작되어 연말에는 배합사료 종류가 다변화되었고, 사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배합사료가 수입개방됨에 따라 외국산 배합사료의 성분등록을 할수 있게 제도화하였다. 10월부터는 국산보리를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국산보리 1% 사용하는데 따라 가격도 1% 상승한다는 등식을 만들어내었다. 다행히 국제곡물과 대두박시세가 하락하고 또 값이 싼 곡물을 수입하게 되어 가격문제는 잘 넘어갈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수지 방어가 경제정책의 최대 문제점으로 등장함에 따라 단일 품목으로는 원유 다음 수입액이 크다는 이유때문에 수입억제의 소리가 높았던 한해이기도 했으며, 이는 금년

에도 더욱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년에는 브로일러의 휴약사료 및 종계용사료에 대한 위생문제도 거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약품업계

84년은 시끄럽던 ILT도 백신수입후 잠잠해진 한해였으며, 뉴캐슬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용맹을 떨친 가금 인플루엔자도 상륙하지 않았다. 또 방역당국에서 질병예찰협의회를 강화 운영하였고 백신도 적기에 순조롭게 공급되었다. (AE를 제외하고는)

뉴캐슬과 EDS76이 혼합된 백신이 수입되어 초산전 1번 주사로 10개월간을 버티게 되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질병 피해는 아직도 클 것으로 보인다.

MG는 거의 모든 닭이, 추백리도 유명 종계장에서 대량으로 양성계가 나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종계사용 불가로 판정을 내려 추백리가 새로 문제가 되었다. MD, IBD에 대한 생산자의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수치로 증명되었다.

계군혈청검사로 실시 대상농장들은 질병피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어렵겠지만 업계에서도 실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약품업계에 대해서는 본지 84년 12월호를 참조하기 바람. 앞으로 닭의 질병을 예방하는 외에 식품 위생면에서 수의사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보사부에서 100명이 넘는 축사에는 소독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어떻게 운용될는지 금년도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기계기구업계

채란계의 경우 계분을 청소하기 위해 스크래퍼 시설의 붐이 시작되었으며, 이제 사료저장조(휘드빈)는 웬만한 농장은 대부분 설치하고 있다. 계사 시설, 대지 구입난에 따라 평당 사육수수가 증가되고 강제 환기시설이 새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작년은 Cage 제조업체도 바쁜 한해였으며 기계화가 이제부터 본격에 오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도 제일케이지를 후원하여 시설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정책의 변화

축산법이 개정되어 부화업이나 종계업외에 일정규모 이상은 등록 또는 허가제로 하고 생산조절을 명할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때의 벌칙을 크게 강화하였다. 특히 84년에는 그간 부족하던 소가 이제는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도살 제한 연령을 철폐하는 등 일대 정책 변화가 있었다. 금년부터는 축산업에 정부의 개입이 더욱 크고 깊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외 83년말 발족된 가금학회(회장 오봉국)의 활동이 활발하여 각종 세미나와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핀란드에서 개최된 세계가금학회에 대규모로 참가하여 학술 발표는 물론 88년 총회를 우리가 참석하기 쉽도록 일본으로 유치하는 등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계란 및 닭고기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중에 있어 금년 8월이면 계산물의 소비유통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문제와 개선점이 밝혀질 것이다.

AAAP(회장 한인규)도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워커히에서 개최되는 제 3 회 총회 및 여의도에서 전시회(기계, 기구 등) 개최를 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여 왔으며 참가신청이 쇄도하여 축산업계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에 큰 성공을 한 축산시험장 (장장 김장식)이 1년간의 시험연구 발표를 학계, 연구계는 물론 지도직 공무원과 업계 중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 산학협동의 새 장을 열었다. 참석한 많은 생산자들의 호응도로 보아 앞으로 이러한 제도는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축산관계 학회 연구회 등의 활동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축산경영학회(회장 유제창 교수)가 한해가 저무는 12월에 창립되었음을 부기해 둔다.